

건설동향

BRIEF_{ing}

• 대구 주택시장 분석

- 분양 → 미분양 1년 6개월 시차,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 지속 전망
- 과거에는 주택가격 상승, 최근에는 공급 급감으로 미분양 감소
- 단기적으로 시장 정상화, 중·장기적으로 공급 관리·지역 활성화 필요

• 세계 건설시장 동향과 우리기업의 도전과제

- 회복세와 불확실성 공존, 세계 건설시장의 경쟁우위 선점 4대 과제
- ① 성장 기회 포착, ② 기술 역량 확보, ③ 인력 해소, ④ 변동성 대응
- 세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

•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대구 주택시장 분석

- 미분양 감소세 이어지겠지만, 속도가 더더질 가능성은 존재... 시장 정상화와 공급 관리 병행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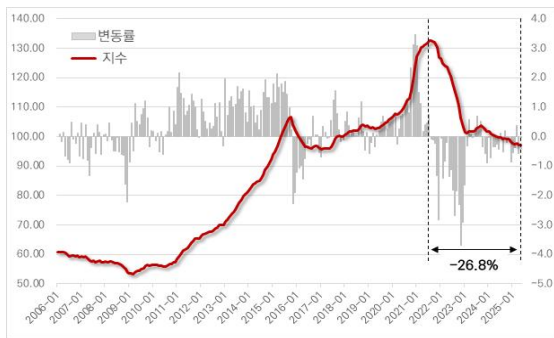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미분양, 분양물량, 매매가격, 매매거래량 분석

- 대구 주택시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미분양이 감소하며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대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21년 8월 하락 전환하였고, 4년여간 하락을 지속하여 2025년 5월 현재 전 고점 대비 26.8% 하락함(〈그림 1〉 참조).
 -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 이르렀으나, 2025년 6월 현재 8,995호로 감소하여 2년 3개월 동안 4,992호가 해소됨.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824호가 적체되어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1〉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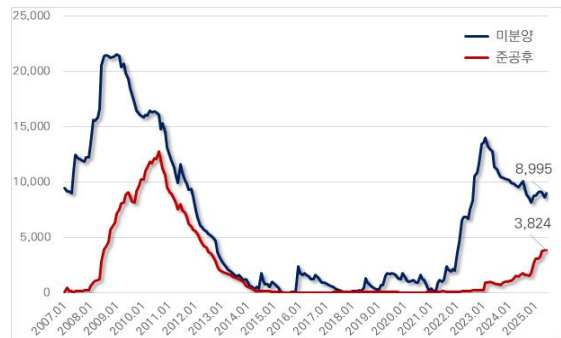
(2017.11=10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그림 2〉 미분양 추이

(단위 : 호)



자료 : 국토교통부

- 신규시장 변수인 미분양, 분양물량, 기존시장 변수인 매매가격, 매매거래량과의 관계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함.
 - 통상 침체기의 특징은 호황기 막바지에 분양물량이 급증하고, 매매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라는 기존 주택시장의 경기 변화 이후에는 미분양이 증가함. 반면, 회복기에는 침체기 동안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미분양이 감소함.
 - 다만, 변수의 선후행성 및 시차는 시기별·지역별 다를 수 있어, 대구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분양 → 미분양 1년 6개월 시차,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 지속 전망

● 대구광역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의 영향으로 분양실적이 급감하였고 이후 미분양이 감소함. 시차를 고려할 때 2025년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증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 31일 자로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전면 보류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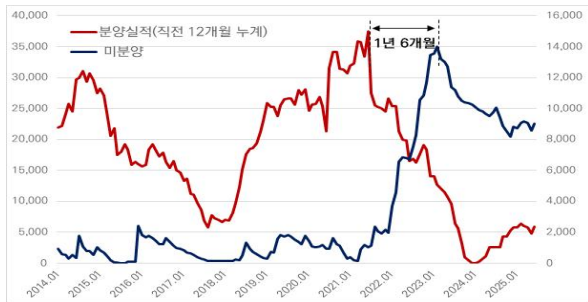
※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임.

- 강력한 인허가 보류 조치로 2023년 1월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 대구의 분양 실적은 8,514호에 불과함.
- 예년(지난 10년, 2013~2022년) 연간 분양물량은 2만 824호였음. 2023년 이후 분양물량은 예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며 최근 미분양 감소는 분양 급감의 영향으로 판단됨.
- 분양(12개월 누계 물량)과 미분양의 시차를 확인하면 1년 6개월 내외임. 2025년 하반기 미분양 수준은 2024년 상반기 분양 물량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그림 3〉 참조).

※ 월간 분양 물량은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고 변동성도 높음. 분양 이후 판매까지 일정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전 12개월(당월 포함) 누계 물량을 분석에 사용함.

〈그림 3〉 분양과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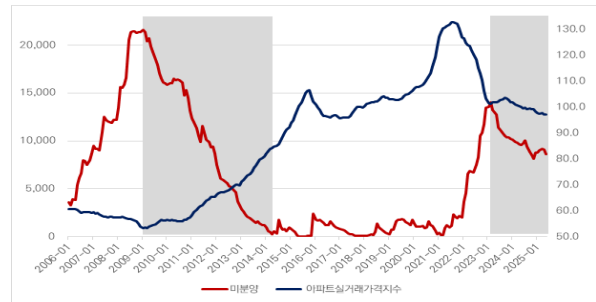
(단위 : 호)



주 : 국토교통부의 분양승인실적은 2013년부터 발표됨.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 4〉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미분양 추이

(단위 : 호, 2017.11=100.0)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과거에는 주택가격 상승, 최근에는 공급 급감으로 미분양 감소

● 과거 대구 미분양 감소에는 주택경기 회복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됨(〈그림 4〉 참조).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구의 미분양은 2만 1,560호(2009년 1월)에 달하였으나, 5년여에 걸쳐 296호(2014년 4월)까지 감소함.
- 동일한 시기 대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2009년 4월부터 상승 전환하여 2015년 10월까지 지속 상승함. 미분양 감소기인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까지 대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83.0% 상승하며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함.

- 최근 미분양 감소는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됨.
 - 최근 미분양이 감소하기 시작한 2023년 3월부터 대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동반 상승함.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5년 5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어 분양 급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 매매거래량 → 미분양에 2~3개월 선행, 기존 주택시장 약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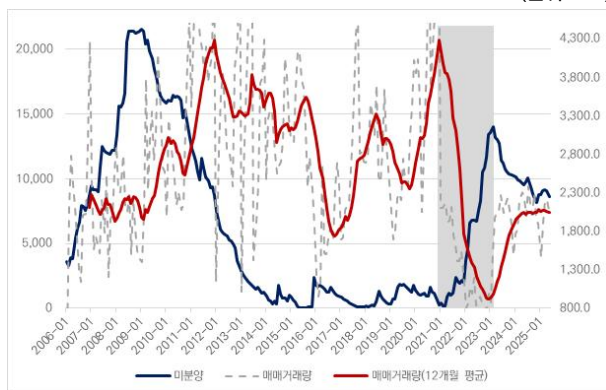
- 미분양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미분양에 2~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5〉 참조).

※ 월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고 변동성도 높아 분양 물량과 동일하게 직전 12개월(당월 포함) 누계 물량을 사용함.

- 침체기에 돌입 시기인 2021년 1월 선행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직전 12개월 평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분양은 3개월 후인 2021년 4월부터 증가함.
- 최근 상황은 아파트 매매거래량(직전 12개월 평균)이 2023년 1월부터 증가하였고 미분양은 후행하여 2개월 후인 2023년 3월부터 감소함.

〈그림 5〉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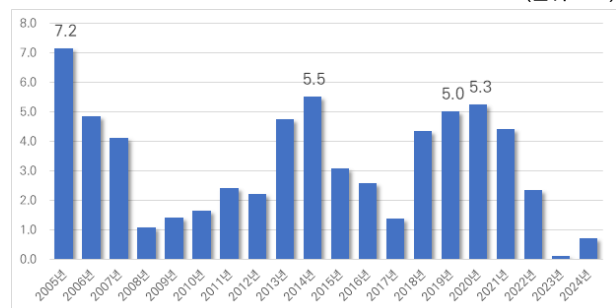
(단위 : 호)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그림 6〉 아파트 재고 대비 분양 비율

(단위 : %)



주 : 재고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아파트수에 부동산114(주)의 준공물량을 합산하여 추정하였고, 분양물량도 장기시계열이 제공되는 부동산114(주)의 자료를 사용함.
 자료 : 통계청, 부동산114(주).

- 공급 급감으로 미분양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속도가 더뎠을 우려는 존재함.
 - 2021년 이후 대구 주택시장을 종합하면, 분양 감소 →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 가격 상승 · 미분양 감소의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
 - 장기 선행지표인 분양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2025년 하반기 미분양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25년 6월 들어 미분양이 다시 증가한 것은 상반기 분양물량이 전년 대비 많았고, 단기 선행 지표인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동행지표인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뎠을 가능성을 내포함.

❖ (단기과제) 시장 정상화 노력

- 미분양 해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택 수요와 자금을 지방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단가 현실화, 민간 참여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매입, CR리츠, 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원 대상을 전체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025.7.9, 의안번호 2211378)이 발의되어 있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고 취득가액도 기존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임.

※ 저출산 대응과 연계하여 2027년 연말까지 출산 가구가 지방 미분양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025.7.10, 의안번호 2211400)도 상정되어 있음.

❖ (중장기과제) 공급 관리 방안 및 지역 활성화 필요

- 대구는 재고 대비 연간 분양 비율이 5%를 상회한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미분양 문제로 이어짐. 체계적인 공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할 것임(〈그림 6〉 참조).
 - 시장의 규모 대비 적절한 공급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아파트 재고 대비 분양물량의 비율을 추정함.

※ 장시계열로 구득 가능한 자료가 아파트 분양자료임에 따라 아파트 재고를 추정함.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대구 총아파트를 기초로 연간 재고물량을 추정함. 2005~2014년의 공표되지 않은 연간 총아파트 수는 2005년, 2010년, 2015년 총아파트 수를 기준으로 부동산114(주)의 연간 아파트 준공물량을 합산하고 오차 부분은 차이는 연간 균등 배분하여 조정함. 2024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이나, 부동산114(주)의 연간자료는 연말임에 따라 기준 시점 차이에 따른 일부 오차 발생 가능성은 존재함.

- 2005년, 2019~2020년 아파트 재고 대비 분양물량이 5%를 상회한 이후 1~2년의 시차를 두고 미분양이 급증하며 시장 침체로 나타남. 2014년에는 5%를 상회하였으나, 단기간 가격 하락 이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당시는 물량 급증 수준 및 기간이 짧았고 거시경제적 충격도 없었음.
 - 대구의 아파트 공급은 특정한 시기에 대량의 물량이 집중되고 이후에는 공급 증가에 따른 침체로 장기 공급 감소 시기가 나타나고 다시 공급이 급증하는 패턴임.
 - 정밀한 주거종합계획 등을 통해 공급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 등 안정적인 지역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만 적절한 주택 수요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세계 건설시장 동향과 우리기업의 도전과제

- Turner & Townsend의 2025 전망을 바탕으로 본 세계 건설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분석 -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회복세 속,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세계 건설시장

- 본 고는 Turner & Townsend에서 발표한 'Global Construction Market Intelligence 2025'¹⁾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 건설시장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Turner & Townsend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원가관리 등의 전문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으로, 해당 보고서는 42개국 99개 지역 건설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자재, 장비, 인력 등의 비용 정보를 제공함.
- 세계 건설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로 건설수요가 회복되며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Turner & Townsend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2024년 4.15%였으며, 2025년에는 3.9%로 낮아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 원자재, 물류, 에너지 가격 등이 정상화되고 대부분의 건설 공급망이 안정되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작으로 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증가함.
 - 다만, 건설 물가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건설 물가는 3%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도 1~2%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일본, 인도 등 숙련 인력 부족과 시장 수요가 강한 국가에서는 5~6%의 높은 수준을 보임.
-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국제 정치 환경으로 인해 무역과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짐.
 - 2025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건설시장에 대한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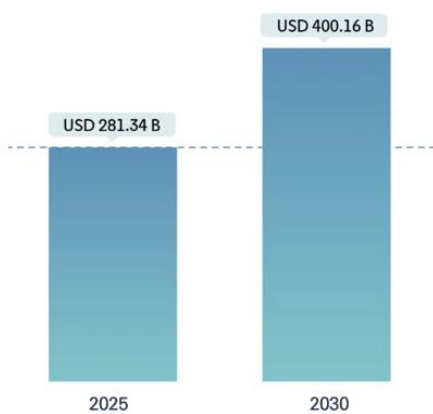
1) Turner & Townsend(2025.7.8.), 'Global Construction Market Intelligence 2025'.

- 세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와 함께 기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향후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함.

과제 ① 부상하는 분야에서의 기회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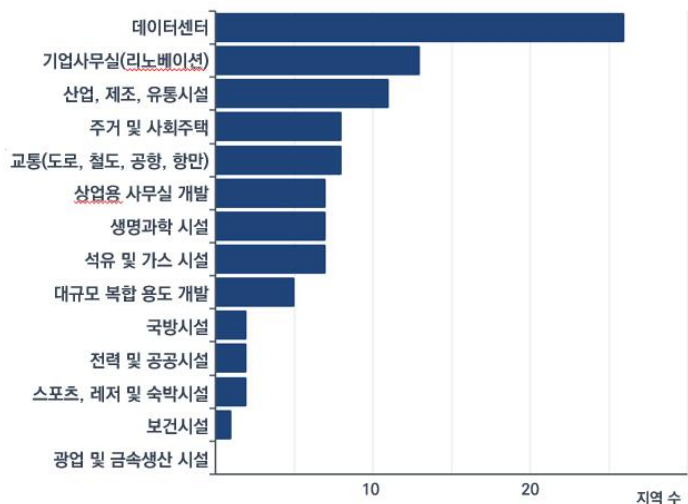
-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5G 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과 수익을 보이고 있음.
 - 시장조사업체 모더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는 AI 인프라,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의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규모가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음. 2025년 약 2천 8백억 달러(388조원) 규모에서 2030년 4천억 달러(552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 참조).²⁾
 - Turner & Townsend는 큰 성장을 보이는 부문으로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방위 산업을 언급함. 그중 데이터센터는 높은 초기 투입 비용과 함께 높은 이익을 얻는 분야로도 나타남(<그림 2> 참조).

<그림 1> 데이터 건설시장 규모



자료: Mordor Intelligence.

<그림 2> 간접비 및 이윤이 높은 건설시장



자료: Turner & Townsend(2025.7.8.)

-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동남아 신흥국 건설시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제조업계와 데이터센터 부문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

2)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data-center-construction-market>

-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와 UAE의 수도 두바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방식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건설시장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해당 지역 전력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2%를 차지하는 시설로,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절약, 탄소 감축 등 환경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데이터센터 업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청정 에너지원의 활용을 중시하는 추세임.³⁾
 - 중동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가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은 높은 수익과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최근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문 계약업체 및 인력풀 부족, 자재 리드 타임 증가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정밀한 시공 역량과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은 필수사항이 됨.**
 -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은 발전기, 스위치기어, 콘덴서와 같은 전기 자재와 HVAC 부품의 납기 지연을 초래하며 프로젝트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 Turner & Townsend의 2024년 조사⁴⁾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핵심 장비의 제조 또는 배송 지연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만큼,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고정밀 시공 역량과 모듈화 부품 조달, 장기 유지보수 체계까지 검토되어야 함.
 - 발주자는 단가보다 신뢰성과 납기 준수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에너지 기준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수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과제 ② 넷제로·디지털전환 기술역량 확보

-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발주처가 탄소저감, 친환경 공법,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세계 건설시장에서도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에 대한 압력이 증가함.**
 - Turner & Townsend의 조사에 따르면, 99개 지역 중 71개 지역에서 넷제로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설계와 도시 회복력 강화가 건설시장의 장기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

3) <https://gbc-engineers.com/news/data-center-sustainability-trends>

4) Turner&townsed(2024), Data centre cost index 2024.

상됨. 고온, 폭염에 견디는 냉방시스템, 폭우에 대비한 빗물 관리 및 방재 인프라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노후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녹색 리모델링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저탄소 콘크리트, 에너지 효율 설계, 현지 사회공헌 등을 포괄하는 ESG 역량이 향후 수주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기술과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짐.

- 건설시장의 친환경 전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친환경 건축 자재, 에너지 효율, 탄소저감 기술 등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녹색기술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 Turner & Townsend 조사에서 99개 지역 중 69개 지역이 친환경 직업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건설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변화의 방향이 명확한 만큼 선제적 투자와 혁신 시도가 필요함.

- 디지털 역량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유럽에서는 BIM이 표준 업무 프로세스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시아에서는 유럽 및 북미 지역 대비 BIM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그림 3> 참조).

●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와 현대적 건설 방식(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의 도입은 인력 부족 해소와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지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임.

<그림 3> 지역별 BIM 활용 수준 평가



자료 : Turner & Townsend(2025.7.8.)

과제 ③ 건설인력 부족 해법 모색

- 건설인력 부족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건설시장에서 일정과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있음.
 - Turner & Townsend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지역의 71.7%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이는 전년도의 79.1%에 비해 개선된 응답이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인력 부족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는 응답은 17.2%에 불과해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함.
 -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극심한 숙련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유럽도 인력난이 악화되어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증가했음.
 - 건설 수요가 높은 지역과 친환경·에너지 효율 분야 등에서는 전문가 부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시장의 인력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모듈러 건축과 프리패브 등 현대적 공법의 확산을 통해 현장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 과제임. 인력 부족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

과제 ④ 국제 정치 및 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

-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지 시장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 각국의 통화·재정 정책은 개발사업의 금융 조달과 부동산 개발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세·수입 규제 등 무역 정책은 자재비와 공급망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한편, 중동의 경제 다변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유럽의 산업 주권 강화 등 국가별 산업 전략이 특정 분야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해짐.
- 그동안 정부는 제1차~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관련 방안을 통해 신시장 개척, 금융·외교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 왔음. 세계 건설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넷제로·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 변화, 공급망 재편, 국제 정치 변화 등 세계 건설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더 많은 성장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정부는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을 넘어서 산업 전략 수립, 외교적 신뢰 형성,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 세미나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세미나 배경 및 목적 |

-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의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산업의 경우 대표적 규제 산업임에도 산업 활력과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혁은 오랜 기간 답보 상황으로 오히려 규제에 의존한 산업 규율의 정책 반복에 따른 중층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에 근원적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상황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 프로그램 |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개회사	이종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15:30	주제발표	1주제 :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 - 김하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주제 :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 - 박상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3주제 :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5:40	Coffee Break	
15:40~17:00	종합토론	
15:40~16:50	• 좌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6인) -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혁신부원장 - 권오경 건설산업비전포럼 사무총장 -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장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16:5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